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김인규	면담자	허은영		
면담장소	미추홀공예사	면담지원	표기자		
면담 일시	2022년 8월 26일	회차	1	시간	36분 53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1550				
구술 개요	고향은 인천 송림동이며 19살 즈음부터 친척 일을 도와주다가 목공일을 시작함. 84년도에 독립해서 상감기법으로 회사를 운영했지만, 일이 생기고 부도가 나면서 그만두게 됨. 목공예마을에 온 지는 20-30년 되었음. 상감기법과 나무를 염색하는 기법을 직접 터득함. 여러 상을 많이 받았었음. 옛날에는 목재가 남향에서, 지금은 북향에서 들어옴. 인천의 옛 이름을 따서 미추홀공예사라고 상호명을 지었음.				
주요 색인어	학창 시절, 목공, 시계 케이스, 조각, 상감, 부도, 납품, 공장, 위험, 염색, 기계, 본드, 도료, 단풍, 공예, 수상 경력, 찻상, 종틀, 국산, 뉴송, 나무 먼지, 화목난로, 미추홀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비공개)	
1. 근황			[음성1] 00:01:25~ 00:02:31	▷ 활동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55년생, 고향은 인천 송림동 - 송림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는 시온 고등공민학교, 19살 때쯤 바로 목공일을 시작함					
2. 목공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음성1] 00:02:35~0 0:03:19		
- 친척이 나무로 시계 케이스를 만다는 공장을 했었음. 그때 일을 도와주면서 시작하게 됨.					
3. 독립을 하게 된 시기			[음성1] 00:03:20~0 0:04:25		
- 84년도 독립을 했음. - 목조각을 주 전공으로 하다가 84년도에 처음 상감을 개발해서 그 때부터 하게 되었음.					
4. 상감기법을 개발하게 된 계기			[음성1] 00:04:26~0 0:07:13		
- 무늬목 나무를 0.6 mm 로 홈을 파서 그 안에 끼워넣는 작업. - 84년도에 개업을 해서 잘 났었지만, 92년도 납품을 하면서 일이 생겨 정리하게 되었음. - 2년 쉬다가 다시 시작을 했지만, IMF때 크게 부도를 맞음.					
5. IMF의 위기			[음성1] 00:07:13~ 00:15:12		
- 98년 12월 말 부도가 났음.					

- 84년도에 제일 처음 시작했던 공장은 승의맨션 지하였음. - 두 번째 공장에서 하던 일이 상감이였음. - IMF로 부도를 맞고 신흥동으로 이사를 가서, 범종(기념종) 만드는 일을 했음. - 목공예마을에 온 건 20-30년 되었음.		
6. 처음 자립하던 시기 - 승의맨션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니께서 오십만원을 주셨음. - 나무에 염색하는 게 제일 어려웠음.	[음성2] 00:14~ 01:19	
7. 상감기법과 나무에 염색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 나무에 염색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일주일동안 공부했었음. 그리고 염료를 나무에 집어넣는 기계를 개발함. - 필요한 것은 직접 염색해서 쓰고 수입할 것은 수입하고 그랬음. - 지금은 염색된 무늬목, 나무를 안 써서 수요가 없음. - 접착제는 순간접착제와 일반 목본드 같이 사용함. - 도료는 우리나라가 많지 않고, 지금 옷칠하는 사람들은 중국산으로 씬. - 목재는 염색할 때 제일 잘 되는 단풍나무로 사용함.	[음성2] 01:19~ 08:50	
8. 현재 주력으로 하시는 일 - 주 분야는 상감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 공예품 만드는 것임. - 전국 공예대전에 전국대회 장려상, 특선을 받고 인천에서는 동상을 받음. - 청와대 사랑채에서 시연했었음. 목공예 쪽이라 장승을 깎았었음. -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은 우리나라 한글을 도안화해서 바닥에 상감으로 만든 찻상. 이 작품으로 인천 공예대전에서 금상을 받음. - 타카(못 받는 기계)를 쓰다가 알맹이가 떨어졌을 때 표시를 내는 기계를 특허냈음. - 필요할 때마다 직접 원해서 만드는 기계들이 많음. - 지금은 국산 기계를 많이 사용함. - 범종 틀 만들 때 뉴질랜드 산 소나무를 주로 사용함. - 옛날에는 목재가 연안부두 쪽(남향)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북향으로 다 들어옴. - 남은 나무 원료들은 겨울에 난로 원료로 사용함. - 처음에는 예화 공예, 그다음에 나래 공방, 그리고 5-6년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미추홀공예사로 상호를 바꿨음. - 인천의 옛 이름이니 미추홀이라고 썼음.	[음성2] 08:51~ 21:19	